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4	2	5	3	3	4	3	5	3
6	4	7	3	8	3	9	5	10	4
11	5	12	3	13	5	14	3	15	5
16	5	17	5	18	4	19	5	20	4
21	2	22	3	23	3	24	2	25	4
26	5	27	4	28	2	29	5	30	3
31	2	32	2	33	5	34	4		

해설

[1~3] 독서(이론), '18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독서법'

1.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④ 2문단의 간서 독서법은 '출판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3문단의 질서 독서법에서는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4문단에서 초서 독서법은 '책을 갖고 출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이 적극 활용한 독서법들은 모두 저술활동 또는 출판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독자는 글을 읽는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간서 독서법은 글을 읽는 속도 조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의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과 '질서 독서법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질서 독서법은 주관적 해석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의 '책의 기호를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읽어 나갈 수 있다.'와 4문단의 '이 독서법에 대해 정약용은 '학문에 보탬이 될 내용만 추려내고 도량이 안 되는 것은 건너뛰며 읽는 것이기에 책을 효과적으로 빨리 읽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를 통해 간서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에서는 책의 기호들을 순차에 따라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의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거나 이를 독서 카드'로 만든다는 것을 통해 초서 독서법이 독서 카드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질서 독서법이 독서 카드를 만드는 것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2. [출제 의도] 글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한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질서 독서법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나간다고 보았다. 4문단에 따르면, 초서 독서법은 '글의 경중을 구별하고 취사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경중의 구별과 취사선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나 주관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질서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에서는 모두 학문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관이 있어야 글의 경중 구별과 취사선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글에 대한 주도적 읽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질서 독서법은 '책의 문자와 어구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책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독서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취사 선택 없이 책을 읽는 것과 상관이 없으며, 초서 독서법은 오히려 취사선택을 통해 글 읽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의 '책을 읽으며 깊이 고찰하고 정밀한 뜻에 대해 생각한 것을 메모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 요약 정리, 주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주관을 가져야 경중에 따른 글 읽기가 가능할 것이다. ③ 3문단의 질서 독서법은 책을 읽는 장소마다 필기도구를 마련해 놓고 뜻을 깨우칠

때마다 잊지 않도록 빠르게 쓰는 독서법이며 여기서 '뜻을 깨우친다는 것은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이기에, 별다른 의미 없이 필기한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필기한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형화한 독서 카드로 발전한 것인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초서 독서법에 쓰인 메모의 방식이 정형화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책을 빠르게 읽는 방법은 간서 독서법과 초서 독서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㉔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3.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③ ㉔는 자기 수양을 위한 독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질서 독서법은 경전에 대한 회의를 통해 깨우친 것을 적는 독서법이다. 또한 3문단에서는 '질서 독서법은 학문을 인식하는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독서법은 부수적으로 다양한 저술활동에 도움이 된 것이지 경전 해석 활동보다 외부 출판 활동을 위한 독서 방법론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려는 안'이다. '를 통해 ㉔는 비판적 읽기가 안 되지만 간서 독서법은 2문단의 '간서 독서법은 독자가 책을 비판적으로 읽게 된 계기가'를 통해 비판적 읽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책의 문자와 어구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와 <보기>의 '옛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며,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경중의 구별과 취사선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뚜렷한 관점이나 주관이 있어야 한다.'를 통해 독자의 주관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옛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며,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를 통해 저자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1문단에서 18세기에 접어들며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4문단의 '책을 읽으며 깊이 고찰하고 정밀한 뜻에 대해 생각한 것'을 통해 깊은 고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어려 책을 널리 읽고 깊이 생각하'되'를 통해 고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4~7] 독서(사회), '법인제 논쟁'(수목 135p 연제)

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③ 5문단에서 법인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및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춘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는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법인제 세계계면 중 하나는 세율을 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법인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이라고 했으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면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법인제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표구간을 나누어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인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법인세 부과에 따라 법인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법인 부문의 자본이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하면 전체적인 경제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법인제 세계계면의 논의 쟁점 중 하나는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법인세의 경제적 부담이 법인의 주주들인 부유층에게 주로 귀착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 여부라고 했으며, 3문단에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법인제 인상의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5.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③ ㉔는 법인제 부과와 고용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3문단에서 법인제가 법인의 자본에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보든 견해에 따르면 법인 내의 자본에 과세할 경우 기업이 자본사용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과세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규모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속적인 과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키는 규모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서 법인제 부과에 따라 법인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맞지만, 상품 가격의 상승은 고용의 위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법인세가 법인 내의 자본에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2문단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이 법인의 주주들인 부유층에게 주로 귀착되어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적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전가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법인에 투입된 노동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반면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법인 내의 자본에 과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법인세 부과 자체로 인해 법인 내 자본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법인제 부과에 따라 법인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비법인 부문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이는 노동의 공급이 이동한 것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6.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④ <보기>에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근거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법인세를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를 법인 내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과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4문단에 따르면 법인세를 경제적 이유에 대한 과세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법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해당 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인한 고용 효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와 고용 효과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낙수효과가 커지는 이유를 투자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기업이 단순히 조세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4문단에서 법인세가 법인의 경제적 이유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에서 볼 때 법인세는 법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업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세금 이외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되면 감소한 세수가 경제발전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낙수효과에 대해 조세 감면의 투자 유인 효과가 크지 않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성장으로 이어질 실물 투자를 크게 줄여, 낙수효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인한 효과보다 적어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조세 감면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것은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것은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보기>에 따르면 법인제 인하의 낙수효과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여 경제가 발전한다면 줄어들었던 세수가 회복될 수 있으나, 경제 활성화와 효과가 정부의 세입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어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낙수효과가 나타나려면 법인제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보다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

7.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③ ㉔는 문맥상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으로, 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의 뜻을 지닌 '구분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㉕는 문맥상 '정제되어 있던 자리, 소속 따위를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으로, 이는 '경조사 주소를 따위를 다른 데로 옮기다.'의 뜻을 지닌 '이전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적절

하다.

[오답 풀이] ① '전거하다'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나 '조세 부담을 사경제적(私經濟的)인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다.'의 의미이다. ② '분당하다'는 '나누어서 말다.'의 의미이다. ③ '분쇄하다'는 '단단한 물체를 가루처럼 잘게 부스르다'의 의미이다. ④ '교환하다'는 '서로 바꾸다.'나 '어떤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가격만큼 다른 재화나 용역 또는 화폐를 얻다.'의 의미이다.

[8~11] 독서(과학), '유전 정보의 복제 과정'(수특 289p 연계)

8.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③ 2분단에서 열처리한 S형 균과 R형 균을 함께 투입한 경우 S형 균이 R형 균을 변화시켜 쥐를 죽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특정 세균은 형질전환의 과정을 거쳐 그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분단에 따르면 그리피스의 실험은 DNA라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물질에 대해 밝혀져 있는 토대가 되었을 뿐, DNA가 형질 전환의 원인임을 밝혀낸 것은 에이버리이다. ② 2분단에서 숙주의 공격에도 죽지 않고 페렴을 유발시킨 것은 표면이 거친 R형 균이 아닌 표면이 부드러운 S형 균이다. 또한 유전 물질의 복제 속도에 대한 진술은 찾을 수 없다. ④ 3분단에서 DNA 분자 가운데 적당한 부위의 염기 서열이 RNA로 복사된 후 이 RNA 복사체에 의해 단백질 합성이 지시되고, 박테리아에서 사람에게 이르는 모든 세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전 정보를 발현한다고 서술하였다. 박테리아와 사람의 몸은 모두 RNA에 의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분단에 따르면 전사 과정에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면서 D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으로 염기를 붙이며 mRNA를 만들고, mRNA는 세포핵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으로 이동한다고 서술하였다.

9.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⑤ A 균과 D 균을 서로 섞어서 주입한 경우는 2분단의 그리피스 실험의 마지막 과정에서 열처리한 S형 균과 살아 있는 R형 균을 섞어 쥐에게 주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S형 균과 R형 균 간에 어떤 것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죽은 쥐에서 살아 있는 S형 균이 추출된다. 따라서 죽은 쥐에서 추출한 E는 살아 있는 S형 균으로, R형 균과 S형 균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B 균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 균은 쥐가 죽지 않았으므로 R형 균에 해당한다. B 균은 쥐가 죽었으므로 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S형 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A 균이 아닌 B 균이다. ② B 균은 쥐를 죽였으므로 S형 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숙주의 공격을 받아 쉽게 버리는 균이 아니다. ③ C 균과 B 균을 주사한 경우 실험체인 쥐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두 균이 모두 죽은 R형 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D 균은 A 균과 함께 주사되어 형질을 변화시켜 쥐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다.

10. [출제 의도] 글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④ 센트럴 도그마의 변역 단계(○)에서 리보솜은 자체적으로 rRNA를 가지고 있는데, rRNA 단위 3개마다 하나의 아미노산들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rRNA에 세 개의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배열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센트럴 도그마의 첫 번째 단계인 복제(㉔)는 DNA에서 DNA로 정보가 전달되는 '복제'인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자기 스스로를 똑같이 복제한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전사(㉕)는 DNA에서 DNA와 비슷한 구조의 핵산인 RNA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DNA가 대옥시리보오스를 뼈대로 사용하는 대신 RNA는 리보오스를 사용하고, DNA가 티민(T)을 염기로 사용하는 대신 RNA는 우라실(U)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㉕에서 생성된 RNA는 DNA의 염기 서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전사(㉕)의 과정에서 RNA 중합효소가 이동하면서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으로 염기를 붙이며 mRNA를 만든다. 따라서 여기에는 DNA의 유전 정보의 일부가 담긴다. 이는 3분단에서 DNA 분자 가운데 적당한 부위의 염기 서열이 RNA로 복사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⑤ 센트럴 도그마의 세 번째 단계인 변역(○)에서 mRNA의 정보가 따라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배열되고, 그렇게 늘어난 아미노산들이 모여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11.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이해한다.

⑤ 나 : 센트럴 도그마 가설(㉔)에 따르면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필요로 할 때 염색체에 있는 DNA 분자 가운데 적당한 부위의 염기 서열이 RNA로 복사된 후 이 RNA 복사체에 의해 단백질 합성이 지시된다. 따라서 DNA 없이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은 ○으로 설명할 수 없다.

㉔ :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형시키는 것은 센트럴 도그마 가설(㉔)의 '복제-전사-번역'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이다.

㉕ : 센트럴 도그마 가설(㉕)은 유전 정보가 DNA, RNA, 단백질의 순서로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RNA에서 DNA를 만드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방향이 반대이므로 ○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이다.

[오답 풀이] ㄱ : 센트럴 도그마 가설(㉔)은 유전 정보가 DNA, RNA, 단백질의 순서로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리보솜은 RNA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숙주 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하는 경우에도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이는 센트럴 도그마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이다.

[12~17] 독서(인문 융합), '21세기 영화이론과 들뢰즈의 이미지'(수능 특강 89p 연계)

12.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③ (가)는 20세기 영화이론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고 21세기 들어 새롭게 등장한 정동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중 적극 활용된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이 소개되어 정동 이론에 대한 스피노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클로즈업 기법을 예시로 들어 영화에서 정감 이미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는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영화이론의 변화 양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나)에서 근대영화 기법과 현대영화의 기법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나)는 들뢰즈가 주장한 정감 이미지의 예시로 클로즈업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는 정동 이론 패러다임의 순차적 적용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정동 이론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고, (나)는 현대영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몸체들이 상호작용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⑤ (나)의 4분단에 따르면 파편적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줄거리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가장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4분단에 따르면 현대영화의 이미지는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며 현실적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는 서로 교환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므로 카메라가 포착한 영화 속의 이미지, 즉 잠재적 이미지는 실제의 이미지, 즉 현실적 이미지와 교환 가능해진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나)의 1분단에서 들뢰즈는 영화가 인간의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사유 방식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화적 기법 중 하나로 클로즈업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클로즈업 기법은 인간이 세상을 사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나)의 2분단에서 클로즈업 기법은 주위의 배경을 비가시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인물이 놓여 있는 지평으로 간주되는 배경을 없애 버린다고 했으며, 모든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사용한다면 관객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에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나)의 3분단에서 클로즈업 기법뿐만 아니라 서사구조를 비선형적으로 전개하거나 사건의 진행을 파편화시키는 등의 기법 역시 관객이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에 무규정적 공간이 창출되어 정감 이미지가 출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영화 속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관객이 연속적이고 전체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무규정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4.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③ (가) 2분단에 따르면, 21세기의 영화이론가들은 영화적 경험을 비기표작용적, 혹은 비인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영화의 감정적, 정동적 차원을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클로즈업을 그것이 가져오는 감정적, 정동적 차원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기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확대라만 보는 것은 감정과 연결되는 이미지의 비

기표작용적 요소가 아닌 기표작용적 요소에 집중된 결과라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 2분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1세기 영화 이론가들은 스피노자의 관점에 따라 정동은 몸체와 다른 몸체의 접촉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동을 바탕으로 영화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객이 영화를 볼 때는 몸체인 관객과 몸체인 영화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 4분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몸체가 정동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따라 정동을 능동적 정동과 수동적 정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상황에 따라 영화가 발생시키는 정동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선지와 같이 단정할 수 없다. ④ (가) 2분단에 따르면, 21세기의 영화 이론가들은 정동 이론을 기반으로 영화가 시청각적 질료로 이루어진 만큼 신체에 언어로 환원되기 어려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시각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오히려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⑤ (가) 3분단에 따르면 행위역량이 증대되는 것은 기법이고, 몸체들은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비기표 작용이 제거된다고 한 바가 없다.

15.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이해한다.

⑤ A가 수영을 완벽히 터득하지 않았음에도 기쁨을 느끼는 것은 수동적 정동에 의한 것이다. (가)의 4분단에서 수동적 정동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채로 발생하며 의지 몸체가 자신의 몸체에 가한 효과에 대한 지각만 이 수반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A는 수영을 완벽히 터득하지 않았음에도 물이 자신의 몸체에 가한 효과를 지각할 수 있으므로 기쁨을 느낀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4분단에서 적합한 말, 또는 공통 개념에 도달하지 않고도 수동적 정동에 의해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A는 공통 개념에 도달하지 않고도 행위역량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물과 상호작용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의 3분단에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동이란 다른 몸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몸체의 행위역량의 변이를 의미하며, 몸체는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아울러 동일한 존재로 취급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A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물과 A가 접촉할 때 양쪽의 행위역량은 모두 변화할 것이다. ③ (가)의 4, 5분단을 참고했을 때, A가 수영을 완벽히 터득하는 것은 물이라는 몸체의 특징적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역량강화적 변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가)의 5분단을 참고했을 때, A가 수영을 배우는 과정은 물이라는 몸체의 특징적 관계가 어떤 것이고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도를 거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A는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 물이라는 몸체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적합한 앎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16. [출제 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⑤ <보기>에 따르면 정동이란 특정 몸체나 의미작용적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강도인데, 이 강도는 길이, 면적, 부피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나) 지문 3분단에 따르면 클로즈업 기법은 공간 구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관객이 거리, 부피 등에 관한 단서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감정의 미묘한 표현이나 암시, 즉 정감을 나타낼 수 있게 하므로 <보기>에서 감정이 강도, 정동에 연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감정의 발생은 의미작용적 맥락에 의해 예측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소유되고 인지된 강도나 포장되거나 정규화된 정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나)에서 제시된 영화 속의 무규정적 공간은 특정 사건이나 이미지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는 감정을 소유할 개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 따르면 정동은 특정 몸체나 의미작용적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강도를 의미하며 강도는 질적인 변화 없이는 분할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가)에서 스피노자가 주장한 정동은 다른 몸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몸체의 행위역량의 변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주장한 몸체의 행위역량은 질적인 변화 없이는 분할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 따르면 마수미는 스피노자의 정동 이론을 기반으로 정동과 감정을 구분하며 의미작용적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정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미지의 비기표작용적, 비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영화적 기법을 이미지의 기표작용적 요소나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들리지가 주장한 영화 이미지가 경감을 발생시키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특정 몸체나 의미작용의 맥락에 귀속될 수 없는 강도로서의 정동을 의미한다. 한편 감정의 발생은 의미작용적 맥락에 의해 예측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공간이 갖는 목적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영화의 배경은 더 이상 어떤 특권적인 장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다. 또한 (나)에서 공간이 갖는 목적성을 통해 의미작용적 맥락에 의한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17.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⑤ ㉞은 문맥상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이다. '신입생 발표회를 거처다'의 '거처다'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마을 회관을 거처다'의 '거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이다. ② '특별히 거절 문제가 없다'의 '거처다'는 '마음에 거러가거나 꺼리다'의 의미이다. ③ '큰 심을 거처다'의 '거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의미이다. ④ '품질 검사관들의 손을 거처다'의 '거처다'는 '검사하거나 살펴보다'의 의미이다.

[18~21] 문학(고전소설), 작가 미상, '김진옥전'(수능 특강: 117쪽)

18.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④ 진옥이 소저에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며 그동안의 일(이산, 화산 도사와의 만남, 과거 급제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회상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외모나 복색, 표정 등을 자세히 묘사한 부분은 없으며, 인물의 성격이나 속성을 외형 묘사로 드러내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현재 진옥이 소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구조이긴 하나, 장면 전환이 복잡하게 교차하거나 효과적으로 배치된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상에 기반한 단일 서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꿈속 공간이나 집의 모습은 일부 언급되고 있지만, 그것이 인물 성격의 변화와 연결되지는 않으며, 공간보다는 사건과 만남에 초점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진옥의 상황은 건박하기보다는 과거의 사건을 자분히 서술하는 구성이다. 연속적인 행동 묘사를 통한 긴장감 조성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19.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에 따라 특정 소재의 의미를 이해한다.

⑤ ㉞은 김진옥이 '남산 주점'에서 꿈을 꾸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도착한 곳으로, 그곳의 집과 산천이 꿈에서 본 모습과 같다고 하며, 꿈에서 받은 운명적 계시를 바탕으로 소저와의 인연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오답 풀이] ① ㉝은 화수암에서 글공부하던 김진옥이 난을 당했다는 부모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향했으나, 이미 빈집이 된 모습을 확인한 뒤 슬픔을 안고 난을 피해 떠나는 공간이다. ② ㉜은 김진옥이 도사를 만나 5년간 학문과 무예를 익힌 공간이다. 김진옥의 출중한 능력을 칭찬하기 위해 도사는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죽어 만군 중이라도 자유로이 다닐 만 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김진옥이 실제로 만 명의 군사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㉛은 김진옥이 글공부를 하기 위해 머물던 공간으로, 호란을 당하여 양친을 잃기 이전에 머물던 곳이다. 도사를 만나 학업을 배우며 세월을 보낸 곳은 난을 당해 부모를 잃은 이후의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㉚은 '나가서 공명을 취하라'라는 도사의 조언에 정성으로 향하던 김진옥이 잠시 머물러 잠을 청하던 곳으로, 꿈에서 본 집은 찾기 이전에 그 꿈을 꾸던 공간이다.

20.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에 따라 특정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④ ㉞은 꿈에서 소저와 자신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했다는 진옥의 말에 대한 소저의 반응으로, 향후 기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소저는 '마음에 의심과 이상함을 느껴' 진옥에게 묻는 것이므로 인물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㉝에서 도사는 진옥에게 왜 깊은 산속에서 홀로 슬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는 홀로 슬퍼하는

이진옥의 모습에 대한 놀라움과 부모를 잃은 진옥의 슬픔과 고독에 대해 연민하고 있는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㉞은 자신을 따라오라는 도사의 제안에 대한 진옥의 대답으로, 도사의 인품과 진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이는 극한의 상황이라도 도사를 따르겠다는 진옥의 결연한 태도와 충성을 나타낸다. ③ ㉝은 도사가 진옥을 자신의 별당에 들인 뒤 건넌 말로, 세상에 나아가 입신양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조언이다. '좋은 때가 올 때까지 학문을 익혀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진옥이 배운 바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조언을 전하고 있다. ⑤ ㉜은 진옥이 소저에게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인연을 맺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고,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이다.

21.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② '중매인을 보내 정식으로 청혼하라'는 소저의 당부는 진옥의 육망 실현 과정에서 조력자가 개입하는 장면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조력자의 도움 없이 주인공이 자력으로 설득해야 할 장애물 또는 관문에 가깝다. 조력자의 '지원'이 아니라 '대화 상대자'의 요구일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바람과 소저와 인연을 맺고자 하는' 바람은 모두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정서와 욕망에 해당한다. 이는 부모와 연인에 대한 주인공의 욕망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도사가 '공명을 취하라',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조언한 것은 진옥의 궁적 성취가 단지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 것이다. 이는 주인공의 육망 실현이 인류 보편의 서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도사가 진옥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일취월장'하게 한 것은 조력자가 세속적 능력 연마를 지원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주인공이 세속적 능력을 연마하여 공명을 이루도록 주체적 실천을 이끈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⑤ 꿈에서 한 여자가 '하늘이 정한 인연을 전하는 것은 운명적 계시의 형식이다.' 이 계시는 진옥의 인연 성취에 결정적 동기를 제공하며, 운명적 계시를 매개로 인연을 성취하게 하는 조력자의 개입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2~27] 문학(갈래복합, 현대시+수필), 조지훈, '산상의 노래'(연계 지문: 수능 특강 77쪽) / 함민복, '한밤의 퇴적도'(비연계) / 이태준, '화단'(연계 지문: 수능 특강 277쪽)

2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한다.

③ (가)에서는 '울어 왔는가', '노래하는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무엇이 있을 거란 말인가', '어디에 있는가'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그러한 총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는 의문형 어미가 활용된 이 표현들은 화자와 글쓴이가 이상적으로 여겨 기다리거나 소망하는 대상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이상으로 적절하며, (다)에서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세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교훈을 드러낸 바가 없다. ② (다)에서는 '성급성급', '무럭무럭'과 같은 의태어를 활용하여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 음성상징어는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아아', '갈고나에서 영탄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침'과 '햇살'과 같은 앞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보여 주는 시어에 대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서 영탄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퇴적도'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회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 (가)와 (다)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기반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③ 일어버린 배는 화자의 것이 아니다. 아울러,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침이 밝았으므로 고간 고생했던 셋베에게 숨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감을 드러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산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며, 이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가)에서 '산마루'에 '홀로 있었던 화자가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다'는 것

은 고독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나타내며, 혼자 '산마루'에 있었던 것과 달리 '아침이 밝아오자 바라볼 '새들이' 나타난 것은 화자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일어버린 배를 되찾은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 (나)에서 '동생의 '등을 두드려 주지 않'으며 '어여 가라'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은, 일어버린 배를 되찾은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이때 화자가 '동생'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어버린 것을 되찾은 이웃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일어버린 배를 되찾은 이웃을 바라보며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공허를 자각하고,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성찰한다. (나)에서 화자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일었던 것 되찾는 황홀감을 떠올리는 것은 이웃을 보며 공허를 자각하게 된 화자가 그러한 자신과 대비되는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내적 성숙에 이르며, (나)의 화자는 스스로를 성찰하며 마음속에서 일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드러낸다. (가)에서 '사슴과 토끼'가 '씻김수를 사양하는 것은 시료를 버려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나타내며, 이를 화자가 '사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제안하는 것은 화자가 내적 성숙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또 (나)에서 화자는 '내 마음의 덕적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버린 것을 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때 '찬 들국 향을 호명한다는 점에서 '찬 들국 향'이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 의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어의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② [B]에 나타난 '홍소리는 '아침'을 맞이하여 '가슴의 한복판까지도' '은은히 울려' 온다는 점에서 성스러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소리'의 성스러운 이미지는 [D]의 '떠오르는 햇살'이 가진 '시월살달의 꿈'이라는 환상적인 이미지와 서로 대응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A]에 나타난 '빛줄은 '시들었다는 점에서 황폐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피리'의 경우 화자가 그 '가락을 더듬'고자 한다는 점에서 '빛줄'의 황폐한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 '꽃다운 하늘'은 화려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A]에서 '아침'은 '홍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막한 이미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D]에서 '햇살'은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직적 이미지가 [F]에서 '웃자락'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웃자락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아니다. ⑤ [E]에 나타난 '가락'은 화자가 '더듬'고 있다는 점에서 촉각적 심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가락'이 '가슴의 한복판'을 여체하지는 않는다.

25.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소재의 차이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한다.

④ ㉝은 '산마루'에서 '남은'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화자의 고된 상황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㉜은 글쓴이가 '노인'의 화단에 있는 대상을 관조하고 있는 것일 뿐 '열매가 도둑도둑 뺏긴 모습 자체가 글쓴이의 상황과 동일시되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㉝은 화자가 '기대'에 있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 ㉜은 글쓴이가 '노인'의 화단 속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㉚은 '높으니 높은 산마루'와 '긴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비해 '남은 고목'이라는 점에서 위태롭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 ㉝은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는 화단의 풍경과 어우러지고 있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③ ㉛은 화자가 무언가를 '간구하며 울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화자가 ㉞에 '못 박힌 듯 기대'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 ㉞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계주와 관련하여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화단을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노인'에 대한 놀라움을 심화하는 대상이므로 적절하다. ⑤ ㉞에 화자가 '못 박힌 듯 기대'에 있었으며, '긴 밤'을 지나왔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어 낸 화자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 ㉝은 '노인'이 자신의 화단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을 바탕으로 '어린 나무'임에도 '열매가 도둑도둑 뺏혔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화단에 대해 애정을 품고 있는 노인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

절하다.

26.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한다.

㉔ ㉔에서 '동생'은 '술 한잔'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자에게 '등을 두드려 달라'고 말하며 ㉔에서 신체적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한편, ㉔에서 화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있었던 것 되찾은' 동생과 달리 자신의 '마음의 덕적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㉔은 화자가 '동생'을 만나게 된 곳이라 할 수는 있지만, '동생'을 위해 찾아가게 된 장소는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 ㉔은 '동생'을 보내고 화자가 스스로 돌아보는 장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㉒ ㉔은 화자가 '동생'과 함께 있는 장소이기는 하나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 ㉔에서는 화자가 스스로 돌아보고 있을 뿐 '동생'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㉔에서 '동생'은 '쭈그려앉아' 있기는 하나 이는 '술 한잔'으로 인해 취하고 있는 자세일 뿐 결론 태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 ㉔에서 화자는 '서서' 바다를 '오래 바라다' 보고 있기는 하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공허함이 심화되고 있는 시간일 뿐 완고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㉕ ㉔에서 '동생'은 화자가 '등을 두드려 주지 않아서 '아속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㉔에서 화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떠올리기보다는 '동생'과 달리 자신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곳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기반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㉔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노인의 화단 속 자연물들이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다)에서 글쓴이가 노인의 화단에 대해 '아무리 보아도 피로운 꼴'이라고 자신의 감상을 기록한 것은 화단의 아름다움이 인위적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일 뿐, 화단이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㉑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화단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다)에서 글쓴이가 노인의 화단에 대해 '그 공이 들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한 것은 현재의 화단의 모습에 노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화단이 인위적으로 가꾸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화단 속의 자연물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다)에서 화단 속에 있는 '석류나무'에 대해 '사충 나무 오충 나무'라고 한 것은 노인이 나무를 충충이 붙여 꾸며낸 것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가꾼 화단 속의 자연물들과 자연 속의 화초를 대비하고 있다. (다)에서 글쓴이가 노인에 대해 '제공을 차하지 못하'겠다고 기록한 것은 화단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자연물들이 자연 속의 화초와는 대비되지 못하므로 적절하다. ㉕ <보기>에 따르면 (다)의 글쓴이는 자연 속의 화초들이 자신에게 본연의 생명력을 일깨워 준다고 여긴다. (다)에서 글쓴이가 분신하는 '일고지해' 없이도 '되는 대로' 자라난다고 기록한 것은,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본연의 생명력에 따라 자라나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다.

[28~31] 문학(현대소설), 김승옥, '차나 한잔'(수능 특강: 175쪽)

28.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㉔ 문화부장은 "저는 이형을 두둔했습니다만..... 국장님도 이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는데... 그..... 독자 여러분이 자주 투서를....."이라고 말한다. 이는 문화부장 개인이나 편집국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독자들의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만화 연재를 중단했다는 해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㉑ 제집에는 평소에는 '그'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괴했지만, 그날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올려다보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전과 다른 반응이다. '그'는 그 눈빛에서 연민을 느끼고 분노보다는 맥이 빠지는 무력감을 경험한다. 즉, '그'가 받은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다. ㉓ 문화부장은 미국 만화가의 교섭이 자기 신문사에도 있었음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만화 연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였다. 그는 "만화 연재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을 뿐 미국 만화가를 내세워 거절할 적은 없다. ㉔ 문화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신문사를 접촉했지만, 사장이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작가 측의 반대는 언급되지 않으므로, 무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㉕ 문화부장은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화를 내고 일고병도 던져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출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참고 살아온 후회는 문화부장이 아니라 '그'의 태도나 내면에 가까운 내용이다.

29.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에 따라 특정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㉔ "차나 한잔"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위기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다. 주인공은 이미 글 내용으로 인해 조직과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이 대사를 계기로 퇴출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표현은 위기의 현실화를 촉발하는 서사적 기제로 기능한다.

[오답 풀이] ㉑ '그'의 해고 통보를 유보하려는 '문화부장'의 정중한 제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두 인물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 예의를 지키되, '해고 통보'와 '해고 대상'이라는 긴장된 구조로 남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㉒ '문화부장'이 제안한 '차나 한잔'은 부드러운 말투 속에 갈등의 현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는 대응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환을 암시하는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사태의 명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문화부장은 자신과 국장이 '그'를 옹호했다고 말할 뿐이며, '그' 또한 회장을 풀거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관계 회복의 계기'라고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 '차나 한잔' 하자는 제안 이후 대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갈등의 해소보다는 현실의 부정적 확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정리가 아닌 위기의 본격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에 따라 특정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㉓ ㉔은 "미국 만화가 측에서요?"라는 단순한 확인 질문으로, 앞서 ㉔에서 말한 "교섭"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발언이다. 이는 상대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나 감정의 반영이기보다는 정보 확인 차원의 중립적인 반응이다. '실망'이나 '구체적 입장을 요구'하는 맥락적ニュ앙스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㉑ ㉔은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발화의 명분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㉔에서 "미국 만화가들의 작품이 실력 계획"이라는 언급을 통해 자신의 퇴출이 단순한 개인적 어둠에 아픔을 내포하는 것임을 타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㉒ 문화부장은 ㉔에서 표면적인 관심을 보이고, ㉔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덧붙이며 공감하는 듯하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변화는 피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대화를 받아주는 척하면서도 상황 개선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 ㉔ ㉔은 사실 확인의 응답이면서, "물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겉으로는 외국 작품 도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조종에 개입한 구조임을 암시한다. ㉕ ㉔에서 주인공은 상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이는 정보 수집을 넘어, 구조적인 돌파구나 도움을 기대하는 발언이다.

31.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㉔ '신경이 곤두선다'는 표현은 내면의 심리 상태를 직접 진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고민한 바가 없다.

[오답 풀이] ㉑ '따'와 '빨개진 얼굴'은 직접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긴장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외적 요소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장성을 객관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㉓ '그런 신문사에서 건너 널 사람'이라는 표현은 말투와 어조를 통해 인물의 자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외적인 언사로 성격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편집국에서 해고되는 것에 체념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는 감정을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정서를 유도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㉕ 제집에의 눈맞춤은 주인공이 마주하기 꺼리는 편집국에서의 해고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행동 중심의 서술 장치로, 향후의 서사 전개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32~34] 문학(고전시가), 신지, '영인십이장'(수능 특강 326쪽) / 한양거사, '한양가'(비연계)

32. [출제 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 (가)는 세상 공명을 현 신이라고 표현하며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드러내었다. 한편, (나)는 생선의 나열, 실과의 나열 등 열거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가)에서는 반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나)는 '구나' 등의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㉓ (가)에는 <제3수>에서 '붉은 비랑', '붉은 꽃', '푸른 물', '흰 갈매기' 등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흰색의 대비를 통해 사물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여러 사물을 나열하며 묘사하고 있으나 색채적 대비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㉔ (가)의 <제2수> 중장에서는 '아이'라는 청자가 제시되지만 인격화된 사물은 아니며, <제11수> 중장에서의 '우리' 또한 인격화된 사물은 아니다. (나)에서는 청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㉕ (가)의 <제3수> 중장에서 '홍화발'과 '백구비'라니 '한층 겨워 하노라'고 하는 대목과 <제6수>의 초장 '구로로 벼을 삼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하면서 자연과 벗하며 지내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지대를 나열하고 있으나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33. [출제 의도] 특정 구절의 문맥상의 의미에 대해 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 (가)의 화자는 ㉔'반구정'에서 하늘의 구름('장연')과 밝은 달('호월')을 바라보거나(<제2수>), 밤 깊은 날에 '반구정'에 누워 지내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의 화자 또한 ㉔'군자정'에서 열리는 승전 놀음을 구경하며 각종 풍산을 보며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㉑ ㉔'반구정'은 ㉔을 언급하는 (가)의 화자가 지내는 곳이지만 지인들과 함께 기거하기를 원하는 장소라는 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㉒ ㉔'군자정'은 ㉔을 언급하는 (나)의 화자가 화려한 정자를 보며 예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했음을 확인하는 장소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㉓ ㉔은 (나)의 화자가 세상의 물정을 파악하게 되는 장소이지만, ㉔은 (가)의 화자가 세상을 등지고 기거하는 장소로서 세상의 물정을 파악하는 장소는 아니다. ㉔ ㉔은 (가)의 화자가 자연과 벗하는 유희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장소이며, ㉔은 (나)의 화자가 승전 놀음을 구경하는 곳기에 유희적 장소로 볼 수 있다.

34.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의해 작품의 의미를 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㉔ (나)의 화자는 군자정에서 벌어지는 '승전 놀음'을 구경하면서 '흰 휘장'과 '높은 차일' 등을 나열한 다음 '난간 밖'의 유리병과 실내의 온갖 '명품' 순으로 경물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관심이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발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㉑ (가)의 화자는 <제6수>에서 '연하로 짐을 삼고 반구정에 누워 바라보는 자연 속 공간의 풍경을 제시한 후, '세상의 부귀 공명을 '현 신'으로 여기겠다고 한다. 이는 외부의 풍경에서 자신의 내부의 태도로 시상을 승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㉒ (가)의 화자는 <제11수> 초장에서 '청산'과 '유수'가 갖는 시간적 영속성을 제시한 후 중장에서는 이를 본받아 '우리도 그치지 말아'고 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영원한 속성을 내면적 덕성으로 승화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㉓ (나)의 화자는 '우리나라 소산'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면서도 '타국 문화'가 어울리고 있는 '백자전'에 대해 '정할시'라고 경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변잡한 도시 경물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㉔ (가)의 화자는 <제2수>에서 '아이'와 같이 중장 첫 구를 3음절로 구사하고 있다. 이는 운율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시상을 응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각색 실과'를 언급한 후 '이'의 구체적 예시를 '밤 대추 갖 호도며 포도 경도 오'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는 가사의 특징인 길이의 자유로움을 통해 시상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하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임을 언급하여 권의 내용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⑤ (나)의 1문단에서 '2023년에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자료'라는 인용한 수치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2문단에서도 '도로교통법 제2조'를 언급하고 있다.

44. [출제 의도] 권의 글쓰기에서 자료나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한다.

④ 나 중에서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볼 때,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0년 새 약 2배로 늘었다.'를 활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ㄱ-1은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런데 이는 자전거 교통사고 중 자전거-자동차 사고 비율이 높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ㄱ-2는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수 구성비인데, 이를 자세히 보면 61~70세의 비율이 23.9%, 71~80세의 비율이 29.3%, 81세 이상이 18%로 61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71.2%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3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현행 대부분의 안전 교육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ㄴ의 '현재 중고등학생에 대한 자전거 안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에 준하여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도,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ㄴ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어겨 자전거 사고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2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발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대가 넘는 노년층이라고 하였다. 이는 61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ㄱ-2와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연령층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ㄴ의 내용을 활용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45. [출제 의도] 권의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한다.

③ '고연령층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V 같은 대중 매체를 이용한 안전 교육을 제안합니다.'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입니다.'에서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는 자전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지,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②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모두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예상되는 기대 효과가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자전거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자전거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자전거 안전 교육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⑤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자전거 안전 교육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연 매 정 답

									35	⑤
36	④	37	④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⑤	43	④	44	②	45	⑤	

해 설

[35~39] 언어

35. [출제 의도] 어근과 합성어의 품사를 파악한다.

① '잘생기다'와 '못나다'는 각각 '잘'과 '못'이라는 부사 어근에 동사 어근 '생기다', '나다'가 결합하여 합성 동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관형사 어근과 형용사 어근이 결합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더욱더'는 부사 어근 '더욱'과 부사 어근 '더'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고, '최대' 역시 부사 어근 '최'와 부사 어근 '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② '본반다'와 '앞서다'는 각각 '본'과 '앞'이라는 명사 어근에 동사 어근 '반다'와 '서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동사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③ '이느새'와 '온종일'은 각각 '이느'와 '온'이라는 관형사 어근에 명사를 품사로 갖는 '사이'의 준말 '새'와 '종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부사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④ '두세'와 '서너'는 각각 '두', '서'라는 관형사 어근에 '세', '너'라는 관형사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관형사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36. [출제 의도] 합성어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④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 ㉠은 대등 합성어, ㉡은 종속 합성어, ㉢은 융합 합성어로 구분되며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은 통사적 합성어, ㉤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목발'은 동사 어근 '목-'과 명사 어근 '발'이 결합하여 '목'은 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앞 어근 '목-'이 뒤 어근 '발'을 수식하므로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사 어근에 명사가 전성 의미 없이 바로 결합한 형태이므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시골길'은 명사 어근 '시골'과 명사 어근 '길'의 결합으로 앞 어근 '시골'이 뒤 어근 '길'을 의미상 수식하므로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므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에 대응되므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안팎'은 명사 어근 '안'과 명사 어근 '밖'의 결합으로, '안'과 '밖'이라는 반의 관계를 가지는 두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하였으므로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대등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므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에 대응되므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딱상냥'은 부사 어근 '딱'과 명사 어근 '상냥'의 결합으로, 앞 어근 '딱'이 뒤 어근 '상냥'을 의미상 수식하므로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에 대응되므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피땀'은 명사 어근 '피'와 명사 어근 '땀'의 결합으로, '피'와 '땀'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노력, 정성'과 같이 두 어근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므로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는 융합 합성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므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미 관계에 따라 ㉡에,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에 대응되므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 의도] 음절의 구조를 파악한다.

④ ㉠의 '원뿔', '갈뿔갈', '원정국'은 모든 음절이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원뿔'은 'ㄱ, ㅍ, ㄷ, ㅅ'로 구성된 'ㄱ, ㅍ, ㅅ'로 구성된 단어로 모든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야유', '여의', '외야'는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야유', '여의'는 각각 'ㅇ, ㅛ, ㅟ, ㅟ'의 이중모음으로 음절을 이루고 있지만, '외야'는 'ㅇ'가 단모음으로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되

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괴리', '제주도', '취가오리'의 음절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괴리', '제주도'는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ㄱ, ㄴ, ㄷ, ㅌ'로 구성되어 있어 단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취가오리'의 모음은 'ㄱ, ㅍ, ㅅ, ㅌ'로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음절 '오'의 초성에 자음이 없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단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악', '형양열', '양육권'의 음절 구성 방식을 보면 각각 'ㄱ, ㅍ, ㅅ, ㅌ, ㅍ, ㅍ, ㅍ'로 구성되어 있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양육권'의 세 번째 음절 '권'에서 초성에 자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 '격률', '별균', '병원균'의 음절 구성 방식을 보면 각각 'ㄱ, ㅍ, ㅅ, ㅌ, ㅍ, ㅍ, ㅍ'로 구성되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만, '병원균'의 두 번째 음절 '원'에서 초성에 자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 모든 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 의도] 부정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을 파악한다.

⑤ ㉠의 서술어 '예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을 나타낼 수 없고,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만 가능하다. 상태를 부정하는 표현에는 '안 부정문'이 사용되므로 '예쁘다'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안 예쁘다'와 '예쁘지 않다'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먼저 의지 부정은 '안 부정문'이 사용되며,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다. 따라서 ㉡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바꾸려면 '-지 않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더하여 '-지 않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능력 부정은 '못 부정문'이 사용되므로 ㉢을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바꾸려면 '-지 못하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더하여 '-지 못했다'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② ㉢의 ㉢은 청유문으로 단 부정문만 가능하며 '못하다', '않다'가 사용되지 못하고 '말다(말자)'가 보충되어 사용된다. 또한 청유문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③ ㉣은 서술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므로 부정문으로 바꿀 경우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을 나타낼 수 없고, '아니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생이 아니었다'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④ ㉤은 청유문인데, 명령의 의미를 갖는 긴 부정문으로 바꿀 경우 명령형 어미의 '말다'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술어 '먹자'를 명령형 어미 '-라'나 '-아라'를 활용한 '먹지 마라'나 '먹지 말아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다.

39. [출제 의도] 중세 국어 자료를 파악한다.

② ㉠의 '네'는 인칭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표현이다. ㉡의 '네'는 인칭대명사 '나'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표현이다. ㉢의 '네'는 인칭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표현이다. ㉣의 '네'는 인칭대명사 '나'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표현이다. ㉤의 '네'는 인칭대명사 '나'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표현이다. 이를 참고하면, ㉠, ㉡, ㉢, ㉣의 '네', '네', '네'는 각각 인칭대명사 '나', '나', '나'에 모두 주격 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는 표현으로, ㉡, ㉢, ㉣, ㉣은 모두 인칭대명사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가 적절하다. 참고로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의 결합 방식은 모음 'ㅇ', '반모음 'ㅇ'를 제외한 모음 뒤에 'ㅇ'가 결합하여 나타났다.

[오답 풀이] 이하 생략.

[40~43] 매체

40. [출제 의도] 매체 내 의사소통 방법의 특징을 파악한다.

⑤ 박 교수는 포털 시행 주체의 다각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문제점과 장점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자신도 1인 가구라고 소개하며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② 사회자는 진행 순서를 지칭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방송의 시작 부분에 인터뷰 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교수는 통계 자료의 출처가 □□ 기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41. [출제 의도] 매체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⑤ '은'은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를 사용하여 1인 가구 포털의 문제점을 언급하던 중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포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온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온 중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라'는 어떠한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을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은 연결 어미 '-라'를 사용하여, 시청자가 1인 가구 구성원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부사 '먼저'를 사용하여 '현황'과 '배경'을 앞서 다룰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용인 '포함되다'를 통해 일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1인 가구로 집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부사 '이러한'을 통해 1인 가구의 등장으로 변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출제 의도] 매체 참여자의 수용 태도를 이해한다.

⑤ 53번의 작성자는 1인 가구 포털 이용자의 연령층과 관련하여, 포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의 양이나 사례가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5번의 작성자는 통계 자료가 최신의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제시한 정보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한 자료인지를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4번의 작성자는 1인 가구 포털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포털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38번의 작성자는 포털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평가에서 1인 가구 포털에 대한 보완점을 다루고 있음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45번의 작성자는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보강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그 타당성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출제 의도] 매체 자료의 기능과 의미를 통해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한다.

④ 알뜰1잡 메뉴는 동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각과 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포털의 메인 화면은 매체의 미적 요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제도 메뉴에 정보의 다운로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매체에 공유된다는 것은 제시된 바가 없다. ③ 참여 프로그램 메뉴에 매체 사용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장차나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Q&A 메뉴에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전화통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온라인 매체도 일방적 소통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44~45] 매체

44. [출제 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방식을 이해한다.

② '청취 후기' 하단에 제시된 하이퍼링크에서는 청취 후기 전체를 보으로써 수용자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제작 의도와 같은 생산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재생 방식을 '처음부터 재생하기'와 '최신 회차부터 재생하기'로 나눠 제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회차별 듣기'에 제시된 목록에서는 별도 기호(화살표)를 사용하여 재생 중인 듣기 자료가 3회차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전체 화면 하단의 '지금 재생' 부분에서는 현재 재생되고 있는 회차와 진행 상황을 표시해 사용자가 청취하고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전체 화면의 상단에 제목과 우주와 관련된 이미지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체제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5. [출제 의도] 매체 제작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파악한다.

⑤ 우주와 관련된 '#우주', '#지구'와 같은 핵심 주제어에 따라 '양자 역학으로 이해하는 우주', '시뮬레이션 우주관', '지구인과 외계인의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볼만한 프로그램'으로 범주화하여 소개하고 있으므로, ㉡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추가 회차를 업로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가)의 '프로그램 개요'에서 굵기와 기울기를 다르게 표시한 '1시간 후에 빠르게'라는 부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한다는 의미이지, 추가 회차를 업로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② (가)의 '프로그램 개요'에서는 별도의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

지 않았다. 또한 예상 청취자의 특성이 아닌, 프로그램 매체의 특성이 담겨 있으므로 ㉠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가)의 '회차별 듣기'는 1~4회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에 따라 최신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가)의 '청취 후기'에는 5점뿐만 아니라 3점, 1점으로 평가한 청취자의 후기도 노출되고 있으므로 ㉡에 따라 가장 호의적인 5점의 평가를 한 댓글들만 전면 노출된 것이 아니다.